http://dx.doi.org/10.16874/jslckc.2025..77.004

현대중국어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 은유를 중심으로

전기정*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선행 연구 및 조사 결과
   1) 선행 연구
   2) 조사 결과
3. 개념적 은유
4. 개념적 은유와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
   1) [사람은 동물이다]
   2) [사람은 식물이다]
   3) [사람은 자연물이다]
   4) [사람은 인공물이다]
   5) [사람은 초자연적 존재이다]
5. 은유의 유형과 상대성
   1) 은유의 유형
   2) 은유의 상대성
6.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현대중국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에 대해 고찰했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전 중의 하나인 『現代漢語詞典(第7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528개의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는 은유, 환유, 품사 전환의 방식을

* 선문대학교 외국어학부 중국어문화 전공 교수

www.kci.go.kr

통해 만들어졌는데, 본고에서는 이 중 은유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람 지칭어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개념적 은유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익숙한 근원영역을 사용하여 낯선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전략이다. 이러한 인지전략은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에도 활발하게 작용한다. 목표영역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양한 근원영역이 활용되는데,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동물, 식물, 자연물, 인공물, 초자연적 존재가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각각의 유형이 나타내는 인지언어학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와 관련한 은유의 유형과 문화 간 은유의 상대성에 대해 논의했다.

키워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 개념적 은유, 근원영역, 목표영역, 일대응 은유, 은유의 상대성

1. 들어가는 말

사람은 혈연관계와 사회적 교류에서 맺어진 관계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의지를 통해 타인을 인식하고 평가한다. 또한 일정한 평가적 색채 어휘를 통해 타인을 부르기도 한다. 安志偉(2011:43)는 이와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사람 지칭어(指人名詞)를 다음과 같은 세 종류로 나누었다. 첫째, 爸爸, 媽媽, 姐姐 등과 같이 혈연관계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친속관계류, 둘째, 同事, 領導, 鄰居 등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사회관계류, 셋째, 絆脚石, 白眼狼, 紙老虎 등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에 기반을 둔 인지평가류이다.

지금까지 사람 지칭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친속관계류와 사회관계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어에 한정되어 있었다. 신어에 대한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사회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기에 적절하지만, 신어는 시의성을 띠고 있어서 어느 시기에 활발하게 유행했더라도 금방 사라질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www.kci.go.kr

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전 중의 하나인 『現代漢語詞典(第7版)』을 대상으로 현대중국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지칭어로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을 지칭할 수 없을 때 비유의 방식을 통해 기존에 있던 어휘의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기존에 없던 신어를 새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安志偉(2011)는 사람 지칭어의 형성 방식으로 은유, 환유, 품사 전환, 유추가 있다고 했으며,[1] 이명아(2024)는 사람 신어의 조어 방식으로 은유, 환유, 언어유희, 모방, 축약이 있다고 했다.[2] 본고에서는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추출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를 대상으로 그들의 형성 방식을 고찰하고, 이들 중 은유를 통해 형성된 사람 지칭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은유는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 주는 방식일 뿐 아니라, 사물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표현하거나 복잡한 설명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주관적 경험을 더 선명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도 은유의 방식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이나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개념을 간결하면서도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3] 인간은 유사한 신체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은유도 유사하고 보편적인 개념적 은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1) 품사 전환(轉指)은 編導, 裁縫 등과 같이 원래의 품사가 동사이거나 新歡, 前賢 등과 같이 원래의 품사가 형용사인 단어들이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유추(類推)는 일정한 격식인 단어 틀(詞語模)을 통해 형성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作家, 喪家, 輸家 등은 X家라는 단어 틀, 球迷, 影迷, 歌迷, 戲迷 등은 X迷라는 단어 틀에 따라 형성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단어 틀에 들어가는 지칭어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고 유추한다.

2) 언어유희(雙關)는 음이나 뜻을 사용하여 문장의 외적·내적 방면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관련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수사법이다. 모방(仿詞)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어를 모방하는 수사법으로, 기존 단어에서 일부 형태소를 교체해 임시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 이는 安志偉가 주장한 유추와 유사한 방식이다. 다음으로 축약(節縮)은 발음과 형식의 편리함을 위한 수단으로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고 언어 문자를 짧게 줄이는 수사법이다.(이명아(2024:272) 참조.)

3) 임지룡(2021:130-133) 참조.

www.kci.go.kr

권에서 완전히 다른 사회문화적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은유 역시 문화 간 상대성을 가질 수 있다.[4] 따라서 은유를 통해 형성된 중국어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를 고찰하면 중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중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에서 사람 지칭어의 종류와 형성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제 2장에서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한 후 『現代漢語詞典(第7版)』을 대상으로 한 본고의 조사 결과를 기술한다. 제 3장에서는 논의의 배경이 되는 은유 이론을 설명하고, 제 4장에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의 특징을 고찰한다. 제 5장에서는 은유의 유형과 문화 간 은유의 상대성에 대해 논의하고, 제 6장에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2. 선행 연구 및 조사 결과

1) 선행 연구

사전적 의미상 지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켜 이르는 말이고, 호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이다.[5] 얼핏 보아서는 비슷한 의미로 보이나, 지칭어는 제3자에게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반면, 호칭어는 상대를 직접 앞에서 부를 때 사용된다.[6]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는 지칭어보다는 호칭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호칭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김춘연(2011), 왕정(2012), 장설(2018), 관시아오쉬엔(2022) 등이 한중 친족 호칭어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했고, 김현희(2024)는 가족 지칭어의 구어적 특징에 대해, 高璇(2011), 李丹丹(2012), 王倩蕾(2013), 杜璇(2017), 謝珍珠(2019), 馮海霞

4) 권연진(2017:299, 337-338) 참조.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6) 김현희(2024:86) 참조.

www.kci.go.kr

(2021) 등은 호칭어의 조어법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7)]

사람 지칭어는 중국어로 表人詞語 혹은 指人詞語라고 하는데, 사람 지칭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신어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雷冬平(2011), 羅湘英(2000), 張鴻艷(2014), 李樺(2015), 魯岭梅(2017) 등이 X控, X男, X女, X哥, X姐 등과 같은 특정 단어 틀을 가지는 신어에 관한 연구했고,[8)] 국내에서는 맹상삼(2021), 티엔위(2022), 수시아(2022), 이명아(2024) 등이 특정 시기의 중국어 신어나 한중 신어를 비교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맹상삼(2021)은 한중 X족(族) 계열 신어를 대상으로 하여 그 구조적 특징과 사회문화적 의미 양상을, 티엔위(2022)는 2020년에서 2021년도 사이의 한중 신어를, 수시아(2022)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한중 [+사람] 신어를 대조 연구했다. 이명아(2024)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국어 신어를 대상으로 사람 지칭어의 생성과 수사적 측면을 분석했다. 신어가 아닌 전반적인 사람 지칭어에 관한 연구로는 사람 지칭어의 형성 방식에 대해 주로 논의한 安志偉(2011)와 단음절 후치조어성분에 대해 주로 논의한 鐘彩虹·胡蓉潔(2022)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은유나 환유 등 비유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람 비유어를 중국어로는 喻人詞語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袁聖柏(2001), 單鵬程(2009), 安志偉(2010), 劉力暢(2020), 권혜리(2016) 등이 있다. 袁聖柏(2001)은 현대중국어에서 사람 비유어의 생성과 비유 의미가 형성된 일반적인 규칙 및 비유어 자체의 특징, 비유와 수사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9)] 單鵬程(2009)은 사회물질문화, 사회제도문화, 사회심리문화의 측면에서 사람 비유어를 분

7) 김현희(2024:85-86) 참조.
8) 魯岭梅(2017:2) 참조.
9) 단어의 비유 의미와 수사학적 비유 용법은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비유 의미는 원형 의미에서 파생되거나 확장된 새로운 의미로서 어느 정도 고정된 의미인 반면에 수사학적 비유 용법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그 문맥을 벗어나면 더 이상 비유적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유 의미와 수사학적 비유는 어찌되었던 간에 비유에 속하므로 모종의 관련을 가지는데, 양자 모두 像과 같은 비유 표지를 통해 직유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袁聖柏(2001:31) 참조.)

www.kci.go.kr

석했고, 安志偉(2010)는 『現代漢語詞典』(第5版)에서 사물로 사람을 비유하는 113개의 어휘를 조사한 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나, 현재는 『現代漢語詞典』이 이미 第7版까지 출판되었고, 사물로 사람을 비유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논의했다는 한계가 있다. 劉力暢(2020)은 한국어와 중국어 사전에서 조사한 사람 비유어를 대조·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수법을 제안했다. 권혜리(2016)는 현대중국어 2음절 사람 비유어의 어휘 의미와 감정색채 의미의 특징을 분석했는데, 사람 비유어는 2음절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1음절, 3음절, 4음절 등 다양한 음절수의 어휘가 존재하므로 전체를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이상의 연구 성과를 살펴볼 때 그동안 사람 비유어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었으나 사람 비유어의 다양한 유형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일부의 유형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2) 조사 결과

본고에서는 먼저『現代漢語詞典(第7版)』을 대상으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 총 528개의 사람 지칭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의 음절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표 1]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의 음절수 양상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합계
수량	6	285	160	76	1	528

위의 표를 살펴보면 2음절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3음절, 4음절, 1음절, 5음절 순이다. 전체 528개 어휘 중 2음절은 285개로 전체의 약 53.98%, 3음절은 160개로 약 30.30%, 4음절은 76개로 약 14.39%를 차지하고, 1음절과 5음절은 수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0]

10) 본고에서 추출한 1음절 사람 지칭어에는 驥, 根, 花, 鴛, 楓, 仙과 같은 6개가 포함되어 있고, 5음절 사람 지칭어에는 銀樣鑞槍頭라는 단 1개만 포함되어 있다. 銀樣鑞槍頭는 '은

www.kci.go.kr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는 [+사람]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어휘가 특정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어휘로 의미가 확장된 경우도 있고, 동물이나 식물 등 [-사람]의 의미자질을 가진 대상이 비유의 방식을 통해 사람을 지칭하는 어휘로 확장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太上皇은 원래 황제의 아버지에 대한 칭호였는데, 막후 조종자, 배후의 실권자, 최고 권력자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고, 變色龍은 동물 카멜레온을 가리키는데, 정치적으로 변화에 능하고 위장을 잘하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휘의 원형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추출한 사람 지칭어를 원형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2] 의미에 따른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 분류

대분류	중분류	수량
무생물	자연물	30
	인공물	127
생물	식물	28
	동물	110
	인간	177
기타	초자연적 존재	44
	기타	12
합계		528

본고에서는 사람 지칭어를 크게 무생물, 생물, 기타로 대분류한 후 다시 무생물은 자연물과 인공물로 나누고, 생물은 식물, 동물, 인간으로 분류했다. 기타에는 특정 부류로 분류하기 힘든 종류들을 따로 모았는데, 여기에는 초자연적 존재와 기타가 포함된다. 초자연적 존재는 생물이나 무생물이 아닌 신이나 귀신 등이 포함되고, 기타에는 품사 전환을 통해 만들어진 사람 지칭어와 특정 부류로 분류하기 힘든 어휘[11]가 포함된다. 전체 유형 중에서는 인간의 비

으로 보이지만 사실 납으로 만든 창끝'이라는 원형 의미에서 은유를 통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확장 의미를 가진다.

www.kci.go.kr

중이 가장 높은데, 본고에서는 인간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여기에는 신체, 특정 인물을 나타내는 인명, 직업·지위·역할과 관련된 어휘 등이 포함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安志偉(2011)를 참고로 하여 본고에서 추출한 528개의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의 형성 방식을 조사했다.[12]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의 형성 방식

형성 방식	은유	환유	품사 전환[13]	합계
수량	314	210	4	528

위의 표를 살펴보면,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는 대부분 은유, 환유의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가운데 은유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자연물, 인공물, 식물, 동물 등 [-사람]의 의미자질을 가진 어휘와 원래부터 [+사람]의 의미자질을 가진 어휘가 은유와 환유 등의 기제를 통해 [+사람]의 비유 의미를 가지거나 더 넓은 부류의 사람 유형으로

11) 특정 부류로 분류하기 힘든 어휘에는 有生力量, 中饋, 尖子, 亮點, 寶貝疙瘩, 美色, 殘渣余孽, 窮光蛋 등이 포함된다.

12) 安志偉(2011)는 사람 지칭어를 형성하는 방식에는 은유, 환유, 품사 전환, 유추라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네 가지 방식과 친속관계류, 사회관계류, 인지평가류 간의 대응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은유식	환유식	품사 전환식	유추식
친속관계류	극소(極少)	극소(極少)	소량(很少)	일부(一部分)
사회관계류	극소	소량	일부	많음(很多)
인지평가류	대부분(大部分)	일부	일부	극소

13) 품사 전환의 방식으로 형성된 사람 지칭어에는 수사에서 '멍청이, 바보'라는 의미의 명사로 전환된 二百五, '믿고 의지하다'라는 동사에서 '부모님'이라는 확장 의미를 가지는 怙恃, '영리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동사에서 '하수인, 졸개'라는 확장 의미를 가지는 嘍囉, '늙고 완고하다'라는 형용사에서 '고집불통, 벽창호'라는 확장 의미를 가지는 老頑固가 포함된다.

14) 이는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가 대부분 은유, 환유, 품사 전환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安志偉(2011:46)의 의견과 일치한다. 그런데 安志偉는 환유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람 지칭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유를 통해 형성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지룡(2023:202)은 의미 확장의 주요 기제인 개념적 은유와 환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언어적 범주를 만드는 대신에 기존의 범주를 이용해서 그 의미를 확장하는 인지 전략이라고 했다.

3. 개념적 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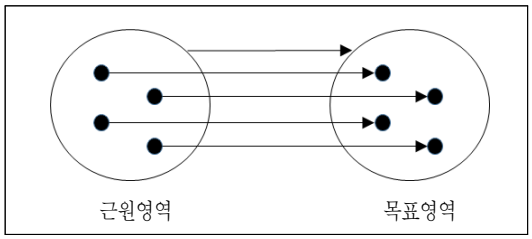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을 체계화한 Lakoff & Johnson(1980:3)은 은유가 단순히 시적인 언어장치나 수사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널리 퍼져 있고,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즉, 은유를 언어의 문제가 아닌 사고나 개념의 차원으로 보고, 하나의 경험 영역을 다른 경험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인지 과정으로 보았다.

개념적 은유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경험 영역인 근원영역(source domain)과 목표영역(target domain) 사이에 일련의 체계적인 대응관계(correspondence)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원영역은 목표영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 빌려오는 영역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자각할 수 있는 반면 목표영역은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하려는 영역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개념적 대응관계를 사상(mapping)이라고 한다.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사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15)]

15) 김동환(2005:191), 권연진(2017:96-97) 참조.

www.kci.go.kr

[그림 1]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사상



개념적 은유는 'A is B(A는 B이다)'의 형태로 표현된다. 예컨대 개념적 은유 [인생은 여행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영역인 '여행'을 통하여 추상적인 목표영역인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념적 은유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익숙한 근원영역을 사용하여 낯선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Kövecses(2002:6)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와 은유적 언어 표현(metaphorical linguistic expression)을 엄격히 구별하는데, 개념적 은유가 사고하는 방식이라면 은유적 언어 표현은 말하는 방식으로, 개념적 은유를 언어적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은 개념적 은유 [인생은 여행이다]와 관련한 다양한 은유적 언어 표현이다.16)

1) 今後，他只能在孤寂的人生道上，永遠做一個凄凉的旅行者。
앞으로 그는 쓸쓸한 인생길에서 영원히 쓸쓸한 여행자가 될 수밖에 없다.
2) 相形之下，女人却强烈地感到：結婚不是"終點"，而應該是兩人之間關繫正式開始的"起點"。
이에 비해 여자는 결혼이 종점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강하게 느꼈다.
3) 這些都是通往幸福道路上的絆脚石。

16) 본고에서 제시한 중국어 예문은 北京語言大學의 BCC 말뭉치(https://bcc.blcu.edu.cn/)에서 추출한 것이다.

www.kci.go.kr

이것들은 모두 행복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

4) 其實我現在面臨着生死關頭，正站在人生的十字路口。
사실 저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고, 인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5) 我將在一個人的指導下找到通向這個坑的路，這個人是我余生的主人和向導。
저는 한 분의 지도 아래 갱도로 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이분은 제 남은 생의 주인이자 안내자입니다.

6) 我能成爲你人生道路上的終生旅伴！
전 당신의 인생길에 평생의 동행이 될 수 있어요!

예문 1)에서는 삶의 주체를 여행자로 표현했고, 2)에서는 삶의 목표를 종점이 되는 목적지로, 새 출발을 출발지로 표현했다. 3)에서는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난관을 장애물로, 4)에서는 선택의 상황을 갈림길로 표현했다. 다음으로 5)에서는 인생의 조언자를 가이드로, 6)에서는 인생의 동반자를 여행의 동행으로 표현했다. 이와 같은 은유적 언어 표현을 통해 개념적 은유 [인생은 여행이다]의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에는 다양한 대응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인생은 여행이다]의 대응관계

근원영역: 여행		목표영역: 인생
여행자	→	삶의 주체
출발지	→	삶의 새로운 출발
목적지	→	삶의 목표
장애물	→	삶에서의 난관
갈림길	→	선택의 상황
가이드	→	인생의 조언자
동행	→	인생의 동반자

위의 그림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인 인생이라는 목표영역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구체적인 개념인 여행이라는 근원영역을 통해 개념화될 수 있음을 알

www.kci.go.kr

수 있다.

그럼 이하에서는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4. 개념적 은유와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

사람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주변의 대상을 통해 추상적이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은유적 인지과정은 사람 지칭어에도 활발하게 작용한다. 목표영역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양한 근원영역이 활용되는데, 본장에서는 개념적 은유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 지칭어에 활성화된 근원영역을 동물, 식물, 자연물, 인공물, 초자연적 존재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7]

1)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의 생김새나 특징, 행동 등이 그에 상응하는 사람의 외모나 가치관, 행동으로 사상되는 개념적 은유 [사람은 동물이다]는 자주 사용되는 관습적 은유이다.[18] 문금현(2014:100)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사람 비유어 중에서는

17) 본고가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추출한 중국어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 중에는 인간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간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인접성(contiguity)에 기반을 두고 있어 환유에 속하므로 본고에서의 논의에서 배제했음을 밝혀둔다.

18) Kövecses(2002)는 개념적 은유를 관습적 은유(conventional metaphor)와 비관습적 은유(unconventional metaphor)로 분류하였다. 이미 일상 언어에 반영되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습적 은유이다. 일상생활에 너무 널리 퍼져 있어 그것이 은유라고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은유(dead metaphor)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일상은유(everyday metaphor)라고도 한다. 반면에 비관습적 은유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 새롭기 때문에 신은유(new

www.kci.go.kr

동물을 활용한 어휘가 46%를 차지할 정도로 동물 은유가 발달했다.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어에서도 동물을 활용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동물이다] 은유는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그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인간에게 매우 친숙하고 잘 알려진 동물부터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까지 다양한 동물이 근원영역이 될 수 있다. 다음은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추출한 동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의 구체적인 양상이다.

[표 4] 동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

분류	사람 지칭어	수량
포유류	阿猫阿狗, 狗腿子, 狗熊, 哈巴狗, 狐朋狗友, 狐群狗党, 癞皮狗, 落水狗, 看家狗, 犬馬, 喪家之犬, 鷹犬, 初生之犢, 黃牛, 老黃牛, 孺子牛, 牛馬, 牛頭馬面, 羔羊, 領頭羊, 替罪羊, 饞猫, 三脚猫, 白眼兒狼, 豺狼, 虎狼, 色狼, 中山狼, 電老虎, 老虎, 母老虎, 死老虎, 笑面虎, 紙老虎, 害群之馬, 黑馬, 驥, 駑駘, 千里馬, 蠢猪, 老狐狸, 瘦猴兒, 狗熊, 過街老鼠, 一丘之貉	45
조류	草鷄, 瓷公鷄, 鐵公鷄, 跛脚鴨, 丑小鴨, 旱鴨子, 菜鳥, 出頭鳥, 鴇母, 鴻鵠, 驚弓之鳥, 驚鴻, 老鴇, 籠中鳥, 雛兒, 閑雲野鶴, 雁行, 野鷄, 鷹隼, 鴛鴦, 夜猫子	21
어류	釜底游魚, 涸轍之鮒, 漏网之魚	3
파충류	變色龍, 大鱷, 地頭蛇, 蛇頭, 王八, 瓮中之鼈, 烏龜	7
양서류	井底之蛙	1
곤충류	饞蟲, 蒼蠅, 蠹蟲, 跟屁蟲, 害人蟲, 糊涂蟲, 寄生蟲, 可憐蟲, 瞌睡蟲, 懶蟲, 蟊賊, 螟蛉, 蛆蟲, 螻蟻, 蛇蝎, 書蟲, 應聲蟲, 蛀蟲	18
갑각류	軟脚蟹	1
상상의 동물	比翼鳥, 蒼龍, 鳳毛麟角, 鶼鰈, 麟鳳龜龍, 鸞鳳, 饕餮, 檮杌	8
기타	冷血動物, 禽獸, 尾巴, 衣冠禽獸, 羽翼, 爪牙	6
합계		110

본고에서는 [사람은 동물이다] 은유의 근원영역인 동물을 다시 포유류, 조류, 파충류, 곤충류 등으로 분류했는데,[19] 위의 표를 살펴보면 포유류를 활용

metaphor)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특히 시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해서 시적 은유(poetic metaphor)라고도 한다.(김동환(2005:440-441) 참조.)

www.kci.go.kr

한 사람 지칭어의 수량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유류 중 개는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로,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빗대는 데 개를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에 속한다. 예컨대 狗腿子는 나쁜 사람의 앞잡이, 狗熊은 겁쟁이, 哈巴狗는 아첨꾼, 狐朋狗友는 불량한 친구, 狐群狗党는 불량배, 癩皮狗는 역겨운 놈, 落水狗는 권세를 잃은 악한, 看家狗와 鷹犬는 앞잡이, 犬馬는 소인, 喪家之犬은 천덕꾸러기이다. 이들 중 신하가 군주에 대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는 충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犬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벌레와 같은 곤충류를 활용한 사람 지칭어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부분 성격적 결함이 있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인간의 유형을 벌레를 통해 비유하고 있다. 예컨대 饞蟲은 걸신들린 사람, 蠹蟲은 해를 끼치는 나쁜 사람, 跟屁蟲은 남들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 害人蟲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나 집단, 糊涂蟲은 사리에 어두운 사람, 可憐蟲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불쌍한 사람, 瞌睡蟲은 잠꾸러기, 懶蟲은 게으름뱅이, 蛆蟲은 나쁜 일만 하는 비열한 사람, 書蟲은 책벌레, 應聲蟲은 줏대 없는 사람, 蛀蟲은 악질분자를 의미한다.

苗雨婷(2020:34)에 따르면 벌레인 蟲은 원래 사람이 아닌 곤충만을 지칭해서 1996년도까지 출판된 『現代漢語詞典』에서는 蟲에 대한 의미 풀이에 벌레(蟲子)만 출현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출판된 판본부터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을 비유한다는 새로운 의미항이 추가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새로운 표제어나 의미항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현재 쓰거나 썼던 말 중에서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고, 언중들이 일상에서 널리 쓰는 말이어야 하므로 단기간 동안 사용된 유행어의 경우 사전에 등재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現代漢語詞典』에서 蟲에 사람 비유와 관련한 새로운 의미항을 추가했

19) 개념적 은유 [사람은 동물이다]에서 근원영역인 동물은 구체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보다 하위층위의 개념인 개, 새, 벌레 등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념적 은유 [사람은 동물이다]는 [사람은 개다], [사람은 새다], [사람은 벌레다]보다 상위층위의 개념적 은유이다.

www.kci.go.kr

을 때는 이미 중국 사회에서 蟲과 관련한 많은 비유어들이 출현하여 널리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20]

은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의 유사성(similarity)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벌레를 활용한 은유는 근원영역인 벌레의 농작물에 대한 해로움과 목표영역의 사회적 해로움이라는 유사성에 의해 활성화됨으로써 발생한다.

동물을 활용하여 사람을 비유할 때에는 癩皮狗처럼 동물의 외형적인 특징을 부각(highlighting)시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을 비유하거나 落水狗, 看家狗, 喪家之犬처럼 개가 처한 상황을 부각시켜 유사한 처지의 사람을 비유하기도 하고, 寄生蟲, 瞌睡蟲, 懶蟲처럼 동물의 습성을 부각시켜 유사한 습관이나 특징을 가진 사람을 비유하기도 한다.

2) [사람은 식물이다]

개념적 은유 [사람은 식물이다]는 식물이 가지는 특징과 사람 간의 유사성에 의해 활성화된다. 식물 은유를 활용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의 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음은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추출한 식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의 구체적인 양상이다.

[표 5] 식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

근원영역	사람 지칭어	수량
식물	并蒂蓮, 草根, 稻草人, 獨苗, 高枝兒, 根, 根苗, 光杆兒, 花, 花魁, 黃花, 金蘭, 金枝玉葉, 開心果, 稂莠, 連理枝, 悶葫芦, 苗子, 命根子, 木頭人, 墻頭草, 翹楚, 群芳, 桃李, 新苗, 朽木, 搖錢樹, 榆木疙瘩	28

20) 張少芳(2006)이 1996년부터 2005년 1월까지 『人民日報』에서 추출한 X蟲류 어휘만 하더라도 寄生蟲, 糊涂蟲, 蠹蟲, 蛆蟲, 應聲蟲, 蛀蟲, 害蟲, 害人蟲, 懶蟲, 可憐蟲, 饞蟲, 瞌睡蟲, 混世蟲, 軟骨蟲, 放屁蟲, 跟屁蟲, 垃圾蟲, 工程蟲, 書蟲, 网蟲, 電腦蟲, 咖啡蟲, QQ蟲, 房蟲, 車蟲, 藥蟲, 人蟲, 辦公蟲, 盯人蟲, 愛蟲, 千年蟲, 千禧蟲, 萬年蟲 등 33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현재까지 사용되는 어휘도 있고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어휘도 있다.

www.kci.go.kr

식물 은유의 종류에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 식물의 부위와 사람 간의 유사성을 활성화한 은유, 식물의 생장시기와 사람의 연령대 간의 유사성을 활성화한 은유, 식물의 생장환경으로 인한 습성과 사람의 성격 간의 유사성을 활성화한 은유, 식물의 생장상태와 사람의 상태 간의 유사성을 활성화한 은유 등이 있다.

식물의 부위를 활용한 사람 지칭어에는 草根, 高枝兒, 根, 花, 開心果, 苗子, 命根子, 楡木疙瘩 등이 있다. 풀뿌리인 草根은 민초, 보통 사람들을, 높은 곳에 있는 나뭇가지인 高枝兒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뿌리인 根은 자손을, 꽃인 花는 미녀를, 피스타치오 열매인 開心果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싹인 苗子는 젊은 후계자를, 뿌리를 나타내는 命根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느릅나무의 옹이인 楡木疙瘩는 고집불통인 사람을 지칭한다.

식물의 생장시기와 사람의 연령대 간 유사성을 활성화한 사람 지칭어에는 新苗가 있다. 새싹 혹은 새순을 가리키는 新苗는 새로 발견한 육성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나 기대주를 지칭한다.

식물의 생장환경으로 인한 습성과 사람의 성격 간 유사성을 활성화한 사람 지칭어에는 墻頭草가 있다. 담 꼭대기에 난 풀을 가리키는 墻頭草는 생장환경으로 인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특징이 있는데, 墻頭草의 이러한 특징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주견 없는 사람과 유사성을 가진다.

식물의 생장상태와 사람의 상태 간 유사성을 활성화한 사람 지칭어에는 幷蒂蓮, 光杆兒, 朽木 등이 있다. 한 줄기에서 핀 한 쌍의 연꽃을 의미하는 幷蒂蓮은 그 생장방식이 사이가 좋은 부부를, 꽃과 잎이 다 떨어진 초목을 나타내는 光杆兒은 부하를 모두 잃은 장군 혹은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지도자나 가족이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을 지칭한다. 썩은 나무인 朽木는 쓸모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밖에 특이한 특징을 가진 식물이 특별한 유형의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잡목(雜木) 중에서 특출한 나무인 翹楚는 특출한 인재를 지칭하고, 금과 옥으로 만들어진 진귀한 나뭇가지와 잎을 가리키는 金枝玉葉는 임금

www.kci.go.kr

의 자손 혹은 귀한 자손을 지칭한다. 또 신화에 나오는 보물나무의 하나로, 흔들면 돈이 떨어진다는 나무인 搖錢樹는 돈줄이 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3) [사람은 자연물이다]

[사람은 자연물이다] 은유를 활용한 사람 지칭어도 그 수량이 많지는 않다. [사람은 자연물이다] 은유는 근원영역인 자연물의 특징이 사람의 속성과 유사성을 가짐으로써 활성화된다. 다음은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추출한 자연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의 구체적인 양상이다.

[표 6] 자연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

근원영역	사람 지칭어	수량
자연물	半邊天, 吉星, 救星, 巨星, 克星, 明星, 牛郎織女, 靑天, 群星, 喪門星, 掃帚星, 泰斗, 泰山北斗, 新星, 及時雨, 新雨, 舊雨, 絆脚石, 墊脚石, 干柴烈火, 禍水, 基石, 靠山, 老江湖, 鋪路石, 淸流, 泰山, 同道, 中流砥柱, 柱石	30

위의 표를 살펴보면, 자연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에는 별, 비, 돌, 하천 등과 관련한 지칭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몇 가지만 예로 들어 설명하면, 牛郎織女는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진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은하수의 동쪽과 서쪽에 떨어져 사는 견우성과 직녀성은 칠석날에만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직장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와 유사성을 가진다. 태산과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泰斗, 泰山北斗는 태산이 중국에서 높은 산을 대표하고, 북두칠성이 가장 밝은 별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 혹은 권위자와 유사성을 가진다. 혜성은 빗자루처럼 생겼다고 해서 掃帚星이라고 하는데, 고대인들은 혜성이 나타나면 상서롭지 못한 징조로 여겼다. 이로 인해 掃帚星은 재수 없는 사람, 불운을 몰고 오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다.

비와 관련한 사람 지칭어 중 때맞춰 내리는 단비를 의미하는 及時雨는 시

www.kci.go.kr

기적절하게 내린다는 점에서 긴급한 고비에 위기나 곤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유사성을 가지고, 이른 봄비 혹은 갓 내린 비를 의미하는 新雨는 새롭다는 점에서 새로 사귄 친구와 유사성을 가진다.

다음으로 발에 걸리는 돌이라는 의미의 絆脚石는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장애 혹은 방해가 되는 사람과 유사성을 가지고, 황허강 중류의 砥柱山을 의미하는 中流砥柱는 격류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우뚝 서 있다는 점에서 역경에 굴하지 않는 사람과 유사성을 가진다.

4) [사람은 인공물이다]

앞선 [표 2]에서 밝힌 인공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는 총 127개로, 전체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환유를 통해 형성된 사람 지칭어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붓대를 의미하는 筆杆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인 문장가를 지칭하고, 연지와 분을 의미하는 脂粉은 여자를 지칭하는데, 모두 그것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또한 무명옷을 의미하는 布衣는 고대에 무명옷을 주로 입었던 평민을 지칭하는데, 의복을 통해 그것을 주로 착용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문간방 혹은 수위실을 의미하는 門房은 이곳에 주로 머무는 문지기 혹은 수위를 지칭하는데, 건축물이 그곳에 사는 책임자나 주인을 지칭하고 있다. 이들 사람 지칭어는 모두 인접성 혹은 관련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거나 착용하거나 거주하던 사람과 동일한 영역에 속하므로 환유를 통해 형성되었다.[21]

본고가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추출한 인공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 중 은유를 통해 형성된 사람 지칭어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21) 환유는 동일한 개념 영역 안에 있는 매체와 목표 간에 사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매체와 목표는 인접성 관계에 있으며, 경험적으로 인접해 있는 두 실체는 개념적으로 쉽게 연상되거나 호환된다.(임지룡(2008:206) 참조.)

www.kci.go.kr

[표 7] 인공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

분류	사람 지칭어	수량
물체	白板, 半吊子, 保護傘, 標杆, 備胎, 不倒翁, 材料, 草包, 出氣筒, 傳聲筒, 醋壇子, 大駕, 大牌, 大炮, 大器, 刀俎, 電燈泡, 釘子, 賭棍, 斷線風箏, 惡棍, 二把刀, 飯囊, 飯桶, 廢物, 風中之燭, 棺材瓤子, 麾下, 狗屎堆, 國寶, 護身符, 花瓶, 話匣子, 活地圖, 活教材, 活字典, 火車頭, 駕, 尖刀, 酒囊飯袋, 老古董, 老油子, 料子, 馬蜂窩, 明燈, 明珠, 木雕泥塑, 幕後, 紐帶, 偶像, 炮灰, 炮筒子, 屏藩, 坯子, 破鞋, 錢串子, 人梯, 肉中刺, 受氣包, 鐵杆, 鐵人, 鐵算盤, 萬金油, 王牌, 橡皮圖章, 小廣播, 綉花枕頭, 烟火, 眼中釘, 藥罐子, 銀樣鑞槍頭, 引線, 油子, 渣滓, 掌上明珠, 直筒子, 智囊, 衆矢之的	76
음식물	半瓶醋, 滾刀肉, 老油條, 太倉一粟, 香餑餑, 油條, 魚肉, 俎上肉	8
건축물	堡壘, 擋風墻, 頂梁柱, 棟梁, 干城, 後台, 支柱, 橋梁	8

본고에서는 [사람은 인공물이다] 은유의 근원영역인 인공물을 다시 물체, 음식물, 건축물로 분류했다. 먼저 물체를 활용한 사람 지칭어를 살펴보면, 낡은 골동품을 의미하는 老古董은 낡고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사고방식이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사람과 유사성을 가진다. 쇠로 만든 주판을 의미하는 鐵算盤은 쇠가 주위 환경의 변화에도 뒤틀리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주판이 계산을 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점에서 계산이 정확한 사람과 유사성을 가진다. 스페어타이어를 의미하는 備胎는 예비용이라는 점에서 지금 있는 애인과 헤어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사람과 유사성을 가지므로 보험용으로 남겨두는 이성 친구를 지칭한다. 최근에는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 원래 참석하기로 한 사람을 대신하여 참석한 사람을 지칭할 때 飯局備胎, 酒局備胎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폐품을 의미하는 廢物는 쓸모가 없다는 점에서 무능력한 사람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런데 廢物는 최근에 자조적으로 자신이 특정한 일을 잘 하지 못하거나, 게으른 상태에 빠졌을 때 농담 섞인 자기비하의 표현으로 사용되거나, 게으르지만 귀엽고 무해한 사람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음식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를 살펴보면, 병에 반만 차 있는 초를 의미하는 半瓶醋는 뭔가 있기는 하지만 별로 정통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www.kci.go.kr

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를 뜻하는 얼치기와 유사성을 가진다. 맛있는 케이크를 의미하는 香饽饽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과 유사성을 가진다.[22] 중국인들이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油條는 기름에 여러 번 튀기는 과정에서 표면에 윤기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점은 오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로 경험이 풍부하고 처세에 능한 사람과 유사성을 가진다. 또 기름에 튀긴 음식이 오래되면 눅눅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노련해질 수 있다. 따라서 油條, 老油條는 처세술에만 능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유형의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건축물을 활용한 사람 지칭어를 살펴보면, 다리를 의미하는 橋梁은 연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개자와 유사성을 가진다. 보루, 요새를 의미하는 堡壘는 공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물이나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유사성을 가진다.

5) [사람은 초자연적 존재이다]

[사람은 초자연적 존재이다] 은유는 근원영역인 초자연적 존재의 특징이 사람의 속성과 유사성을 가짐으로써 활성화된다. 초자연적 존재에는 생물 혹은 무생물로 분류하기 어려운 신이나 귀신, 괴물, 신선, 요정 등이 포함된다. [사람은 초자연적 존재이다] 은유를 통해 형성된 사람 지칭어는 초자연적 존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색채 의미를 그대로 반영한다.

다음은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추출한 초자연적 존재를 활용한 사람 지칭어의 구체적인 양상이다.

22)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밖에 얇은 잎으로 둘러싸인 황금색 과실인 金燈果를 香饽饽라고도 한다. 金燈果는 익으면 영양이 풍부하고 딸기 같은 맛이 난다.(https://baike.baidu.com 2025. 4. 5 검색)

www.kci.go.kr

[표 8] 초자연적 존재를 활용한 사람 지칭어

근원영역	사람 지칭어	수량
초자연적 존재	魑魅魍魎, 蒼龍, 饞鬼, 催命鬼, 地煞, 恶魔, 恶煞, 耳報神, 怪物, 鬼靈精, 過路財神, 哼哈二將, 狐狸精, 混世魔王, 活菩薩, 活神仙, 活閻王, 酒鬼, 開山祖師, 魔怪, 魔鬼, 魔王, 牛鬼蛇神, 菩薩, 色鬼, 色魔, 神仙, 死神, 替死鬼, 天使, 天仙, 瘟神, 仙, 小鬼, 小氣鬼, 兇神, 吸血鬼, 蝦兵蟹將, 閻羅, 妖精, 妖孽, 夜叉, 夜游神, 醉鬼	44

초자연적 존재를 활용한 사람 지칭어를 살펴보면, 여러 종교에서 신의 사자(使者)인 天使는 천진하고 귀여운 소녀를 지칭하고, 전설 속 천상의 선녀인 天仙은 미녀를 지칭한다. 이들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초자연적 존재를 활용한 사람 지칭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전설 속의 흉신인 蒼龍은 극도로 흉악한 사람을 지칭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당인 混世魔王은 말썽꾸러기를 지칭한다. 불교에서 절의 문을 지키는 두 금강신을 가리키는 哼哈二將은 파트너가 되어 누군가를 지킨다는 점에서 권력자의 오른팔, 왼팔을 지칭하고, 나아가 한통속이 되어 나쁜 짓을 하는 두 사람을 지칭할 때에도 사용된다. 전설에 의하면 哼哈二將은 하나는 코로 흰 연기를 뿜고, 다른 하나는 입으로 노란 연기를 토해내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사람 지칭어로 사용될 때에는 이러한 특징은 은폐되고 둘이서 함께 누군가를 지킨다는 점만 부각된다.

다음으로 고대 신화나 소설 속의 용왕이 통솔하던 새우, 게 등으로 구성된 군사를 가리키는 蝦兵蟹將은 힘이 없어서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합지졸과 유사성을 가진다. 즉,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우리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우나 게 등은 바닷속 생물체 중에서도 연약한 편에 속한다. 따라서 蝦兵蟹將은 상대방의 부하나 장병을 멸시하면서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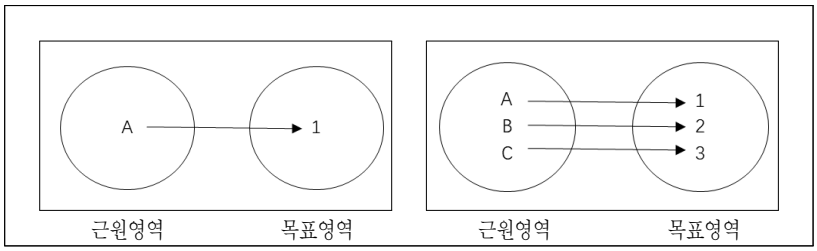
5. 은유의 유형과 상대성

1) 은유의 유형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은 속성 중 일부만이 유사성을 가진다. 즉,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은 전체적으로 완전히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구조화된다. 만일 은유적 구조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개념은 단순히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 그 자체와 일치되어 버린다.[23]

Ruiz de Mendoza(1997)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 사상 과정의 수에 따라 은유의 유형을 일대응 은유(one-correspondence metaphor)와 다대응 은유(many-correspondence metaphor)로 나누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일대응 은유와 다대응 은유



이상의 그림에서 일대응 은유는 근원영역의 전체 개념적 구조에서 단 하나의 속성이 목표영역에 사상되는 은유이고, 다대응 은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간에 여러 속성이 사상되는 은유이다.[24]

23) 권연진(2017:147) 참조.
24) Herrero-Ruiz(2004:138) 참조.

www.kci.go.kr

그럼 본고에서 논의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는 일대응 은유와 다대응 은유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개념적 은유 [사람은 동물이다]와 관련한 은유적 언어 표현이다.

7) 如今恩索已經變成了總統的哈巴狗、私人秘書。
이제 엔소는 대통령의 하수인이자 개인비서가 되어 버렸다.
8) 因此誰都不敢做出頭鳥，只想等着做應聲蟲。
그래서 누구도 감히 앞장서지 못하고,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9) 表面上我是父親的代表，主辦文化事業，其實我只是個寄生蟲。
표면적으로 저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문화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버지께 빌붙어 사는 것뿐입니다.

위의 예문 7)에서는 하수인을 哈巴狗로 표현하고, 8)에서는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을 出頭鳥로, 하라는 대로 따르는 예스맨을 應聲蟲[25]으로 표현했고, 9)에서는 남에게 빌붙어 사는 사람을 寄生蟲으로 표현했다. 위의 예문들은 동물의 두드러진 한 가지 속성만 부각되어 사람이라는 목표영역에 사상되고 나머지 속성은 은폐(hiding)된다. 즉, 7)은 근원영역인 哈巴狗의 주인을 잘 따른다는 속성만 부각되고, 개가 가진 나머지 속성, 예를 들면,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는 특징, 냄새를 잘 맡고 귀가 밝다는 특징 등은 은폐된다. 8)의 出頭鳥는 머리를 들고 있는 새의 속성만 부각되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날 수 있거나 부리를 가지고 있고, 알을 낳는다는 등의 속성은 은폐된다. 應聲蟲은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흉내내는

25) 宋나라 彭乘의 『續墨客揮犀』에는 應聲蟲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楊씨 성을 가진 淮西 사람이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말을 할 때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작게 그의 목소리를 흉내를 냈다. 몇 년이 지나자 뱃속의 소리는 점점 커졌다. 어느 도사가 그에게 그것은 應聲蟲이고,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그의 아내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다. 도사는 그에게 『神農本草經』을 읽게 했는데, 어떤 약재를 읽었을 때 뱃속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즉시 멈추고 그 약을 복용하면 應聲蟲이 제거된다고 했다. 양씨는 도사의 말대로 따랐는데, 雷丸을 읽자 뱃속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에 그가 곧바로 이 약을 복용하자 병이 나았다.(https://baike.baidu.com 2025-07-05 검색)

www.kci.go.kr

속성만 부각되고, 징그러운 생김새나 무척추동물에 속한다는 등의 속성은 은폐된다. 9)는 숙주에 빌붙어 사는 기생충의 속성만 부각되고, 기생충의 종류나 생김새 등은 은폐된다.

위에서 [사람은 동물이다] 은유만을 예로 들었지만,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는 일대응 은유 유형에 속한다.[26]

2) 은유의 상대성

은유적 언어 표현은 언중의 실제적인 경험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는 객관적 연상 관계에 바탕을 둔다. 은유가 인간 경험의 주관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 간의 상관성에 기초함에도 불구하고 문화 집단, 개인들 사이에서는 은유의 상대성이 존재한다. Kövecses(2005)에 따르면, 문화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도 존재하지만, 많은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념적 은유가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Kövecses는 은유가 문화 간 차원과 문화 내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은유를 총칭 층위(generic level) 은유와 특정 층위(specific level) 은유로 나누었다. 총칭 층위 은유는 총칭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문화 간에도 거의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정 층위 은유에서는 문화 간 은유의 상대성(variation)이 존재한다.[27] 예컨대 돈의 가치를 모르고 흥청망청 마구 돈을 쓰는 모습을 표현할 때 한국어로는 “돈을 물 쓰듯 한다.”라고 표현한다.[28] 반면, 중국어에서는 挥金如土라고 하여 “돈을 흙 뿌리듯 한다.”로 표현

26)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연극이다], [논쟁은 전쟁이다], [논쟁은 건축물이다] 등의 개념적 은유는 다중 사상으로 인해 구성된 체계적 대응의 집합이므로 다대응 은유에 속한다.

27) 백경희(2012:120), 권연진(2017:338) 참조.

28) 반면 영어로는 ‘play ducks and drakes with one's money’로 표현한다. 영어에서는 오리를 근원영역으로 하여 오리가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목표영역인 돈을 쓰는 행위에 사상한다.(趙家明·朱俊浩(2011:274) 참조.)

www.kci.go.kr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돈은 자연물이다] 은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근원영역으로 물을 활용하지만, 중국어에서는 흙을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된 예들 중 문화 간 은유의 상대성을 반영한 경우를 찾아보면,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와 관련한 [사람은 초자연적 존재이다] 은유는 다른 언어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적 은유이지만, 초자연적 존재의 하위층위 개념인 蒼龍, 哼哈二將, 蝦兵蟹將 등은 중국 특유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사람은 동물이다] 은유 중에서도 중국 특유의 문화를 반영하는 예들이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근원영역에 상상의 동물이 나오는 경우 이들은 대부분 중국의 신화와 고사, 전설 등의 민간문화를 반영한다. 예컨대 금슬 좋은 부부를 지칭하는 比翼鳥는 전설 속에 나오는 새로, 암수가 항상 함께 난다고 전해진다. 비익조와 비목어를 의미하는 鶼鰈도 사이좋은 부부를 지칭한다. 또한 매우 드물고 진귀한 인재를 지칭하는 鳳毛麟角는 봉황의 털과 기린의 뿔을 가리키고, 고상하고 걸출하여 존경받는 인물을 지칭하는 麟鳳龜龍는 전설 속 신령스러운 동물인 기린, 봉황, 거북, 용을 가리키고, 좋은 친구 혹은 걸출한 인재를 지칭하는 鸞鳳은 난새와 봉황을 가리킨다. 또한 흉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饕餮과 흉악한 사람을 지칭하는 檮杌은 전설에 나오는 흉악한 맹수이다. 이들 중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중국 특유의 민간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 전고(典故)를 활용한 사람 지칭어도 문화 간 은유의 상대성을 반영한다. 중국인들은 고전 문학, 역사, 신화 등에서 유래한 상징적 표현이나 고사(故事)를 문장이나 대화에 인용하는 습관이 있다. 전고를 활용한 사람 지칭어의 예를 들면, 대중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孺子牛는 『左傳·哀公六年』에 기재된 "춘추시대 제나라 경공이 아들과 놀면서 새끼를 입에 물고 소 시늉을 하면서 아들에게 끌게 하다가 아들이 넘어지면서 자신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29] 배은망덕한 사람을 지칭하는 中

29) 李婧(2012:30) 참조.

www.kci.go.kr

山狼은 宋代 謝良이 지은 『中山狼傳』에 나온 “中山에서 사냥꾼에게 잡힐 뻔한 늑대를 東郭 선생이 구해주었는데, 오히려 그 늑대가 동곽 선생을 잡아먹으려 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전고는 단순한 인용을 넘어, 중국인의 가치관, 전통, 지혜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6.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현대중국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에 대해 고찰했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전 중의 하나인 『現代漢語詞典(第7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528개의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는 은유, 환유, 품사 전환의 방식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본고에서는 이 중 은유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람 지칭어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개념적 은유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익숙한 근원영역을 사용하여 낯선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전략이다. 이러한 인지전략은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에도 활발하게 작용한다. 목표영역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양한 근원영역이 활용되는데,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동물, 식물, 자연물, 인공물, 초자연적 존재가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각각의 유형이 나타내는 인지언어학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와 관련한 은유의 유형과 은유의 상대성에 대해 논의했다.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는 대부분 두드러진 한 가지 속성이 부각되어 사람이라는 목표영역에 사상되고 나머지 속성은 은폐되므로 일대응 은유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편폭상의 제한으로 인해 은유 기제를 통해 형성된 인지평가류 사람 지칭어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했는데, 단어의 의미 확장에는 환유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차기 연구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www.kci.go.kr

參考文獻

권연진, 『인지언어학에서 은유의 보편성과 상대성』, 서울: 한국문화사, 2017.

권혜리, 「현대중국어 喩人詞에 대한 소고(小考)」, 『중국연구』, 67, 2016.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의미론』, 서울: 태학사, 2005.

_____, 『환유와 인지-인지언어학적 접근법』, 서울: 한국문화사, 2019.

맹상삼, 「사회문화적 양상에 따른 한중 [+사람] 신어의 비교 연구－2010년대의 '○○족(族)' 계열 신어의 구조적과 의미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논문지』, 15, 2021.

문금현, 「인간 관련 비유어에 나타난 인지의미 양상」, 『언어와 문화』, 10-2, 2014.

백경희, 「현대 러시아어에서의 언어적 은유와 문화적 변이형」,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41, 2012.

수시아, 「한중 [+사람] 신어의 인지언어학적 대조 연구－2010-2020년 신어를 중심으로－」, 『동서인문』, 18, 2022.

윤혜지, 「朱柔英 詞의 典故運用 試探」, 『중국지식네트워크』, 18, 2021.

이명아, 「중국어 사람 신어의 생성과 수사 현상－2016년-2020년 중국어 신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96, 2024.

이범열, 「현대중국어 식물은유」, 『중국어문학지』, 52, 2015.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2008.

_____,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2021.

_____, 『다의어와 의미 확장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2023.

티엔위, 「코로나 시대, 한중 양국 신어의 비교 고찰－2020-2021년 미디어 신어를 중심으로」, 『2022년 제1회 韓/中 언어·문화 융·복합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22.

Barcelona, A. Introduction: The cognitive theory of metaphor and metonymy. In A. Barcelona (Ed.),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A*

www.kci.go.kr

cognitive perspective.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2000.
Herrero, J. The emeralds of your face : metaphor and metonymy in some expressions. *Cuadernos de Investigación Filológica*, 29, 2004.
Kövecses, Z.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Kövecses, Z. *Metaphor in Culture: Universality & Vari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2005.
Lakoff G. & M. Joh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80.
Langacker, Ronald W.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Ruiz de Mendoza Ibañez, F. J. Metaphor, metonymy and conceptual Interaction. *Atlantis,* 19, 1997.

安志偉, 「現代漢語詞匯"以物指人"現象論析」, 『山東師范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 2010.
_____, 「現代漢語指人名詞的産生途徑探析」, 『安慶師范大學學院學報(社會科學版)』, 11, 2011.
單鵬程, 「現代漢語喩人詞語的文化觀照」, 曲阜師范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李 婧, 「試論漢語慣用語的文化內涵及其特徵」, 『林區教學』, 1, 2012.
劉力暢, 「漢韓喩人詞語對比分析及教學策略」, 魯東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劉衛紅, 「現代漢語雙音節詞比喩義的喩体來源及文化內涵探析」, 『語文建設』, 9, 2014.
_____, 「現代漢語雙音節喩人詞的漢英對比研究」, 『中原工學院學報』, 5, 2015.
魯岭梅, 「新興指人名詞"X哥"的語義研究」, 湖南理工學院 碩士學位論文, 2017.
呂東博, 「《現代漢語規范詞典》(第3版)與《現代漢語詞典》(第7版)比喩借代指人詞語對比研究」, 河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苗雨婷, 「現代漢語動物喩人慣用語研究」, 上海外國語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孟曉慧, 「比喩詞語的類型、意義及與比喩義的區別」, 『現代語文(語言研究版)』, 9,

www.kci.go.kr

2007.
朴小溪, 「漢韓喩人慣用語對比研究及教學方案」, 遼寧師范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史錫堯, 「名詞比喩造詞」, 『中國語文』, 6, 1996.
束定芳, 『認知語義學』,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8.
袁聖柏, 「表“人”比喩義詞語淺論」, 『湖南廣播電視大學學報』, 2, 2001.
趙家明·朱俊浩, 「隱喩認知的民族性思考」, 『海外英語』, 1, 2011.
張少芳, 「“蟲”詞族詞語探析」, 『河北大學成人教育學院學報』, 1, 2006.
鐘彩虹·胡蓉潔, 「現代漢語表人詞語結構類型與單音節“後置構詞成分”特點分析」, 『黑河學院學報』, 3, 2022.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www.kci.go.kr

Abstract

A Cognitive Linguistic Study on Modern Chinese Person-Referring Nouns Based on Cognitive Evaluation

— Focusing on Metaphor

Jeon, Gi Jeong

In this paper, we examine person-referring nouns extensively used in modern Chinese from a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Bas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Modern Chinese Dictionary (7th Edition)", one of China's most representative dictionaries, a total of 528 person-referring nouns, identified based on cognitive evaluation, were extracted. These nouns were created through processes such as metaphor, metonymy, and conversion of parts of speech. In this paper, we focused our discussion on person-referring nouns created through the method of metaphor.

The conceptual metaphor is a cognitive strategy that utilizes familiar source domains from our experiences to conceptualize unfamiliar target domains. This cognitive strategy is actively applied in the formation of person-referring nouns based on cognitive evaluation. Various source domains are utilized to understand the target domain of people, including animals, plants, natural objects, artifacts, and supernatural beings, according to our investigation. We examined the cognitive linguistic characteristics represented by each type and discussed the types and variations of metaphors related to person-referring nouns based on cognitive evaluation. Most of these nouns fall into the category of one-correspondence metaphors, as a prominent attribute is projected onto the target domain of people while other attributes are concealed.

Due to space limitations, our discussion was limited to person-referring nouns based on cognitive evaluation formed through the mechanism of metaphor. Since metonymy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emantic expansion of words, we plan to address this in future research.

www.kci.go.kr

Key words : Cognitive Evaluation, Person-Referring Nouns, Conceptual Metaphor, Source Domain, Target Domain, One-Correspondence Metaphor, Variation of Metaphor

투 고 일 : 2025. 7. 10. / **심 사 일** : 2025. 7. 15.~ 2025. 8. 15. / **게재확정일** : 2025. 8. 20.

www.kci.go.kr

www.kci.go.kr